르뽀

현장 취재 "농협건강검사의 현장을 찾아서"

"이젠 농민들도 건강검사를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농협조합 공제회에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 공제회는 '61년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농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 농가자녀 장학사업, 유통사업, 공판장 운영, 진료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86년부터 무료 간염검사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 농협은, 그 두번째 사업년도인 올해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바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건협과 협의, 이동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농협조합

검진버스를 이용해 직접 각 단위조합으로 출장하여 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을 제외한 총 9개 도에서 1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검사사업은 9월 초까지 계속 실시하게 된다.

기자는 그중 총 157개면에서 13,2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0일까지 검사하게 될 경기지부 검사팀과 함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으로 가서 검사과정, 농민의 반응, 환원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해 봤다.

농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보람을 느낄 수 밖에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 놓을 것 같은 모습을 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검진팀을실은 검진버스는 김포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농민들의 간염검사를 시작한 이래,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검사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하루 평균 2~3개 조합을 돌아다니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면 남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야하는 것이 요즈음 그들 검사팀들의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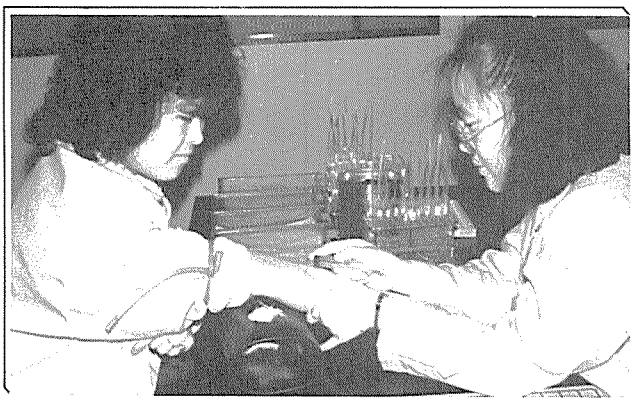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의 표정 어디에서도 피곤함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내용이 농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리라.

올해 농협 간염검사자 중 약 10%인 13,000명을 검사하기로 되어있는 경기지부는 바쁜 일정을 적절히 활용하기에 여념이 없단다.

검진차가 고촌 단위농협조합에 도착하자 검사를 받기위해 일찍부터 모여있던 조합원들이 金起旭 조합장과 함께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김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바로 검사준비에 들어갔다.



평소엔 농사일로 바쁘고 한가해도 건강엔 관심이 없었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주었읍니다.

농협 직원 한사람이 책상을 검진버스앞에 내어 놓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농민과 조합사원들의 검사를

공제조합에 가입된 농민을 비롯한 조합사원들은 차례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접수를 한 후 검진버스 안으로 들어가 간염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고 소변을 받아왔다.

소변검사는 건협에서 농협의 환원 사업의 뜻에 동의하는 뜻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농민 중에는 사비를 내어 종합검사를 받기도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엔 관심이 없었는데……

『평소엔 농사일로 바쁘고, 한가해도 건강을 지킨다느니 하는 데에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조합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우리 농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어 기분이 좋구만요.』 고촌에 살고 있는 주민 이 윤우씨(53세)의 얘기다.

조합에서 생명공제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가족 중의 한사람이 무료로 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해주어야 겠다고 덧붙인다.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부담이 없어……

또, 주민 신 철숙씨(32세)는 자궁암검사 외에는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기회가 아주 좋아요. 어쩌다 병원에라도 한번 가려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불편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이번엔 그런 불편이 없어,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없읍니다.』라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조합과 건협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농민들이 무관심했던 건강에 관심을 갖기를……

고촌 단위농협조합장 金起旭씨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농민의 99% 이상이 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민간보험에 비해 납입금이 적은 반면, 혜택은 상당히 크니까요.』라면서 이런 간염검사 외에도 『장학금지급, 농업자금 대출, 공동출하반 운영 같은 일도 단위별로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농업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준비자금이 없어 안타까왔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보조할 수 있게까지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공제조합의 활동은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읍니다.』라면서, 그는 특히 고촌지역의 농민들은 모든 일에 협동이 잘되어 조합장으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다.

그는 이번 간염 무료 검사에 대해 『직접 현지까지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주 좋군요. 이번 검사를 계기로 농민들도 무관심했던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라면서 육체적 노동이 많은 농민들에게 있어서의 건강이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질병검사를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기욱 고촌 단위농협조합장◦사진중앙)

그는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內에서 여러가지 질병검사를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락부녀회장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그를 통해 일반 농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라면서 농민을 위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건강관리사업의 정착을 위해 계몽교육에 힘쓸 작정입니다."라고 말하는 元容福 사무국장

한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한다.

새로운 보람을 하나 더 만들고····

약 3시간에 걸친 고촌면의 건강검사를 마친 검사팀은 조합원과 김 기욱 조합장의 환송을 받으면서 마을을 떠나 다음 단위조합을 향해 달렸다.

모두들 새로운 보람을 하나 더 만들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채취한 가검물을 정리하고 또 다른 곳의 농민,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농민들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밝은 웃음을 나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연구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한편 경기지역 13,000농민의 간염무료검사를 위한 검진버스운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 용복 사무국장과 장 상철사업과장은『농민들이 검사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정을 계획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라면서,『이외에도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 경기지부의 업무자세가 "항상 연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외에 그들은 가족계획사업과 병해하여 부녀자들의 자궁암검사도 실시하고, 시군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검사사업, 의료보험측면의 사업장 근로자 검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특히『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계몽교육에 힘쓸 작정입니다.』라면서, 국민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이 은희 글〉